

자세히 알고봅시다...평창동계올림픽의 엄청난 의미

오늘부터 25일까지 17일간 개최
92개국 5만여명 참여 '역대 최대'

지구촌 최대의 눈과 얼음의 축제인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가 9일부터 25일까지 17일간 평창 강릉 정선 일대에서 펼쳐진다. 92개국에서 선수와 임원 6500여명을 비롯, 5만여명이 참가한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부터 오늘까지 여정, 평창 동계올림픽의 의미와 특징, 올림픽 메뉴, 올림픽을 만들고 빛낸 사람들, 성화 봉송과 개회식 등을 정리했다.

2011년 7월7일 오전 0시18분(한국시간),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총회장 연단에 선 지크 로제 당시 IOC 위원장이 'PYEONGCHANG(평창) 2018'이라고 적힌 하얀 종이를 보여주며 "평창"을 외쳤다. 두 번의 실패를 딛고 세 번의 도전 끝에 힘겹게 이뤄 낸 유적이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유치함으로써 대한민국은 88 서울올림픽을 시작으로 2002 FIFA 월드컵, 2011 대구 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 이어 세계 4대 국제 이벤트를 모두 개최하는 위업을 달성한 5번째 국가가 됐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다음이다.

평창 동계올림픽은 단순한 국제 스포츠 행사가 아니다. 88 서울 하계올림픽 이후 대한민국에서 30년 만에 개최되는 올림픽이자, 최초의 동계올림픽으로 대한민국 '올림픽 역사의 완성'이라는 의미가 있다.

평창 동계올림픽은 동계올림픽

사상 최대규모로 개최된다. 지난달 29일 선수 참가 등록 신청 마감 결과, 92개국 선수 2925명이 등록했다. 88국이 참가한 2014 소치 동계올림픽보다 4국, 선수는 67이 늘었다. 참가 국가와 선수 규모에서 역대 동계올림픽 최대 기록인 2014 러시아 소치 동계올림픽의 88국 2858명을 갈아치우게 됐다.

평창 동계올림픽에 미국은 역대 올림픽 사상 단일국가로는 가장 많은 선수 242명을 등록했다. 대한민국 또한 역대 최대 규모인 15개 전 종목에 144명이 참가한다. 2010 밴쿠버 동계올림픽(5종목 46명)보다 3배, 2014 소치 동계올림픽(6종목 71명)보다 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통해 동계올림픽 무대에 첫 선을 보이는 나라도 6개국에 이른다.

'적도의 나라' 에콰도르(크로스컨트리스키)를 비롯해 말레이시아(피겨스케이팅·알파인스키), 싱가포르(소프트트랙), 에리트레아(알파인스키), 코소보(알파인스키), 나이지리아(봅슬레이·스켈레톤) 등 눈도 얼음도 구경하기 힘든 환경에서도 굵은 팍방울을 흘리며 꿈을 키워온 선수들이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세계 정상급 선수들과 기량을 겨룰 예정이다.

100개 이상의 금메달이 걸린 최초의 동계올림픽이기도 하다. 2014 소치 동계올림픽보다 금메달 4개가 늘어나 역대 최다인 금메달 102개



(설상 70·빙상 32)을 놓고 경쟁하게 된다. 스노보드 바이에(남·여), 스피드스케이팅 매스타트(남·여), 알파인스키 혼성 단체전, 컬링 믹스 더블이 추가됐다. 스노보드 평행회전(남·여)은 제외됐다.

2019년 3월 5G 서비스를 상용화할 계획인 대한민국은 평창 동계올림픽 경기장에 오는 모든 사람에게 세계 최초로 5G 시범서비스를 한다.

정지 상태에서 다양한 각도의 화면을 제공하는 타임슬라이스, 선수의 시점에서 경기 영상을 제공하는 싱크뷰, 중계 화면에서 특정 시점·위치를 골라볼 수 있는 옴니포인트 뷰 등 5G 기술을 적용한 다양한 실감형 콘텐츠를 OBS가 5G 콘텐츠를 방송용으로도 제작, 각 국에 제공함으로써 세계인들이 안방에서도 올림픽 경기를 다양하게 즐길 수 있도록 한다.

음성인식과 대화처리 기술을 활용한 인공지능(AI) 콜센터도 구축했다. 경기 정보, 교통, 관광 정보 등 각종 올림픽 관련 전화 문의 중 한국어, 영어로 된 간단한 질문에 AI 콜센터 안내도우미가 응답한다. 복잡한 질문은 상담원이 응대한다.

경기장 선수촌, 미디어촌 등 올림픽 현장 곳곳에 11종 로봇 85대도 투입된다. 안내로봇은 주요 행사장에서 경기 일정과 관광 정보 등을 안내하고, 공항에서는 평창과 강릉 이동을 위한 교통수단 안내, 에스코트 등을 한다.

평창 동계올림픽은 평화와 화합의 올림픽 정신을 가장 잘 보여주는 평화올림픽으로 역사에 기록될 전망이다.

남북이 대체하고 있는 휴전선에서 불과 80km 떨어진 곳에서 올림픽이 열리면서 일부 국가는 우려를 제기하며 참가를 주저하기도 했다. 그러나 평창 동계올림픽을 평화올림픽, 안전한 올림픽으로 개최하기 위한 조직위원회와 대한민국 정부의 노력에 북한의 참가가 더해지면서 걱정은 불식됐다.

5종목 46명 규모의 북한 선수단이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가하고 남북 선수단이 개회식에 공동입장하며, 여자 아이스하키 종목 단일팀을 구성한다는 내용이 담긴 남북 선수단 개회식 공동입장은 올림픽 사상 네 번째, 단일팀 구성은 최초다.

올림픽에 필요한 경기장과 대회 관련 시설은 작년 12월 모두 완공됐다. 설상 경기장은 평창 마운틴클러스터, 빙상경기장은 강릉 코스타클러스터에 위치하고 있다. 개회식장이 있는 올림픽플라자에서 차량으로 30분 내외 거리가 있다.

참가 선수의 75% 이상이 숙소에서 경기장까지 10분 안에 도착이 가능하도록 배치돼 있다. 이러한 근

접성과 접근성은 '선수 중심 대회'를 가능하게 하며, 동계올림픽 사상 가장 포괄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회식상장, 성화대, 메달플라자, 문화ICT관 등으로 구성된 올림픽플라자 5만1024㎡ 규모로 대회 시설 중 가장 큰 IOC, 평창과 강릉 선수촌 강릉 미디어촌 등 대회관련 시설도 작년 9월 완공돼 미디어, 선수단 등이 이용하고 있다.

12경기장 중 최고의 첨단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경기장은 올림픽 슬라이더 센터다. 2013년 12월 착공해 2017년 12월 준공된 슬라이더 센터는 유럽의 수작업 중심의 건설공법에 기계·자동화 공법 등 신기술을 도입했다. 30달이 걸리는 트랙 공사 기간을 12달 만에 완성하는 등 공기를 단축했다. 완성된 트랙은 국제 경기연맹(IBSF, FIL)의 10차례 현장 검측을 통해 완벽하다는 평가와 함께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스키점프센터, 크로스컨트리센터, 바이애슬론센터 등이 자리한 알펜시아 올림픽 파크는 역대 동계올림픽 파크와 월드컵 등을 통틀어 세계 최초로 설상경기장 방송용 조명을 LED로 설치했다.

알펜시아 스키점프센터는 세계적 수준 이상의 시설로 탈바꿈했다. 눈을 쌓아 흙을 파서 이용하던 구형 트랙을 자동화 냉각 시스템을 적용, 쿨링 시스템으로 교체해 선수들의 안전과 운영인력의 작업 간소화를 이뤄냈다.

알파인스키 경기장은 길이, 표고차, 평균 경사도 등 IOC와 FIS가 정한 엄격한 기준을 만족시켜야 하므로 남녀 활강코스를 별도로 건설해야 한다. 그러나 FIS와 수차례 협의 끝에 2013년 2월 세계 최초로 남녀 활강 경기 코스를 통합하는 합의를 이끌어내 가리왕산의 환경 훼손을 최소화(30% 이상 산림 추가 보전)했고, 수백억원의 사업비도 절감했다.

강릉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은 자연의 언덕 지형을 그대로 이용해 경기장을 배치했다. 절·성도를 최소화 사업비를 줄였다.

피겨스케이팅과 소프트트랙 경기가 열리는 강릉 아이스아레나 경기장은 '비틀어진 역반(ice work)'이라는 디자인 콘셉트와 특징을 지니고 있다. 눈이 덮인 것 같은 순백색 결정체 이음매 없는 단면으로 '피겨 여왕 김연아의 점프와 동계올림픽 이미지를 표현했다.'

1개 경기장에서 2개 종목이 개최됨에 따라 빙면의 두께를 편차 없이 제빙할 수 있는 첨단 자동 제빙 시스템(피겨 영하4도, 소프트 영하7도)과 빙상경기장 최초로 관람석 온도 15도, 습도 40%를 유지하는 공조시스템을 갖췄다. 레벨 오차 ±

3.5mm 평활도로 빙면 두께 편차가 없어 경기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최상의 빙질도 제공한다.

국내 최초이자 유일한 아이스하키 전용 경기장인 강릉 아이스하키 경기장은 하키 파크 골키퍼의 모습을 형상화한 아이스 펍이라는 디자인 콘셉트를 가지고 있다. 관람석 하부에 냉난방 시스템을 설치한 데다가 아이스링크와 1.6m로 가까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동감 있는 경기 관람이 가능하다.

대회 참가 선수 중 최다 메달 보유자는 노르웨이의 마리트 비에르렌(37·여자 크로스컨트리)이다. 2010 밴쿠버 올림픽 3관왕, 2014 소치 올림픽 3관왕으로 올림픽 메달 10개(금6·은3·동1)를 보유하고 있으며 월드컵 112회, 세계선수권 18회 우승 등 화려한 경력의 소유자다.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메달 획득 시 동계올림픽 사상 최다 메달 획득 여자 선수는 대기록을 달성하게 된다.

최연소 선수는 2002년생인 한국의 김하늘(여자피겨 싱글), 알리나 자기토크(OAR 여자피겨 싱글), 장 커신(중국 알파인스키), 위량(중국 프리스타일 스키), 제니 리 부르만(스웨덴 알파인 스키), 구니타케 히로아키(일본 스노보드) 등 6명이다. 최고령 선수는 2010 밴쿠버 올림픽 은메달리스트인 캐나다의 세릴 버나드(1966년생 여자 컬링)로 여전히 녹슬지 않은 실력을 보이고 있다. 최연소 선수와 최고령 선수의 나이차는 38세다.

가족이 올림픽에 참가해 주목을 받고 있는 선수들도 있다. 여자 아이스하키 한국대표 박윤정(24·미시간 브란트)과 한나 브란트(23·미국)다.

박윤정은 생후 4개월 미국 가정에서 입양돼 양부모가 낳은 동생과 함께 아이스 하키 선수로 활약. 평창 동계올림픽에 나란히 한국과 미국을 대표하는 선수로 출전했다.

미국의 알렉사 시메카·나이킵 크리스 부부가 피겨 페어에 함께 참가하고, 베카·맷 해밀턴 자매도 컬링 믹스더블 출전권을 획득했다. 대한민국 여자 컬링의 김영미·경애 자매, 아나스타샤 브리즈갈로바와 알렌산드르 크루셀닉스키(OAR) 부부도 컬링 믹스더블 팀으로 출전했다.

평창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8만여명의 대회운영인력이 팍과 열정을 쏟아내고 있다. 조직위원회 직원 1200여명,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 기관 단기관 5600여명, 군 병력 5300여명, 중앙부처 수습사무원 330명, 자원봉사자 2만1000여명, 기타 4만8000여명이 함께 뛰고 있다.

자원봉사자는 64개국에서 올림픽 1만5008명. 패럴림픽에 6584명이 참여한다.

한국인 1만5192명(93.7%)을 제외한 외국인은 6.3%(1026명)로 미국(249명), 러시아(117명), 일본(116명), 캐나다(115명), 중국(101명) 순으로 많다.

88 서울올림픽에 자원봉사로 참여한 부모의 대를 이어 30년 만에 개최되는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여한 자원봉사가 눈길을 끈다. 양승민씨는 88 서울올림픽에 자원봉사로 참여한 부모의 대를 이어 30년 만에 개최되는 평창 동계올림픽에 아버지, 어머니, 동생 등 온 가족이 함께 자원봉사로 참여하게 됐다.

권영중 전 강원대학교 총장은 강원대학교 단체 자원봉사를 이끌고 있으며, 진직 언론인·공직자 등도 평창 동계올림픽 자원봉사에 힘을 보태고 있다.

그리스를 출발해 대한민국에 도착한 성화가 101일간의 대장정을 마치고 9일 평창에 도착한다.

평창 동계올림픽 성화봉송 슬로건은 '모두를 빛나게 하는 불꽃'(Let Everyone Shine)이다. 꺼지지 않는 성화의 불꽃이 언제나 어디든 나 누구나 가지고 있는 꿈과 열정, 미래를 비추줄을 의미한다.

평창 성화봉송 기간은 101일, 주자는 7500명, 봉송거리는 2018km에 달한다. 100이라는 완성된 숫자에 새로운 지평을 여는 하루를 더해 총 101일 간 대한민국 전역을 희망과 열정의 불꽃으로 밝혔다. 한반도의 평화를 기원하며 남북한 인구 7500만명을 상징하는 7500명의 주자가 함께 했다.

성화는 첨단 과학기술이 녹아 있는 성화봉으로 불꽃의 여정을 이어왔다. 성화봉은 영하 35도, 순간 풍속 35m/초, 100mm/초의 강우에서도 15분 이상 불꽃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제작됐다. 이러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역대대회에서 가장 꺼지지 않는 불꽃을 구현해 IOC의 찬사를 받았다.

개회식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바흐 IOC 위원장, 16국 정상급 위원이 참석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확인된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남북 외국 정상급 인사는 21국 27명이다.

이희범 조직위원장은 "2018년 지구촌 최고의 축제인 평창 동계올림픽이 개회식을 시작으로 막을 올린다. 조직위원회는 물론 8만여명의 대회운영인력의 팍과 열정,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인론 등의 진폭적인 지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국민들의 성원이 하나가 돼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을 향해 나아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